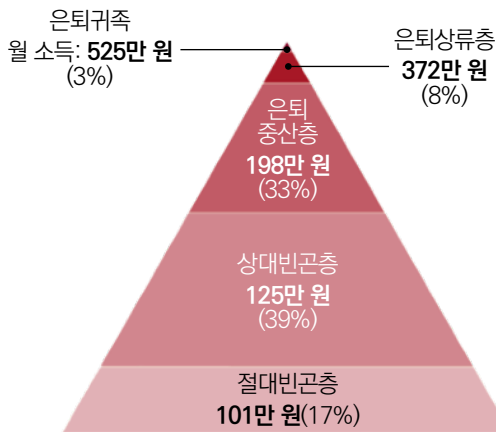




은퇴 가구 절반 이상(56%), 노후소득 빈곤층!

- ▶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년기의 노후소득이 얼마나 될까?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'생활비 총당' 정도에 따라 은퇴귀족, 은퇴상류층, 은퇴중산층, 상대빈곤층, 절대빈곤층의 5단계로 분류한 소득 등급표를 '노후소득 피라미드'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살펴본다.
- ▶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,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 층인 '은퇴 귀족층'은 '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'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전체의 3%를 차지하고, 월 소득**은 525만 원(세전)으로 조사됐다. 반면 가장 하층인 '절대빈곤층'(17%)의 경우 월 소득이 101만 원(세전)으로 은퇴 귀족층 소득의 1/5수준에 불과했다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'상대빈곤층'(39%)과 '절대빈곤층'을 합한 비율은 56%로 은퇴 가구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 셈이다.

[그림] 노후소득 피라미드 (60세 이상 은퇴 가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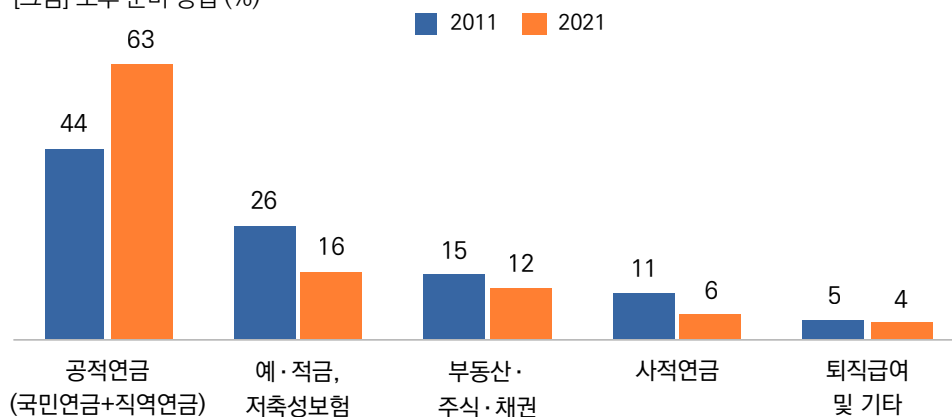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: 조선일보, '퇴직 후 매달 198만원 꽃하면 중산층... 은퇴 귀족층은?', 2023.07.07. (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money/2023/07/07/K2WX4M2C5VCKBEFO2XJPKQCH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)

**월 소득: 근로 소득, 연금, 재산 소득, 주식·이자 등 금융 소득, 기타 사적 소득 등

◎ 노후 준비 방법으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'공적연금' 꿈어

- ▶ 65~74세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방법을 질문한 결과, '공적연금(국민연금+직역연금**)'이 63%로 가장 높았는데, 10년 전 대비 19%p나 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'예·적금, 저축성보험' 16%, '부동산·주식·채권' 12%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노후 준비 방법 (%)



*자료 출처: 조선일보, '퇴직 후 매달 198만원 꽃하면 중산층... 은퇴 귀족층은?', 2023.07.07. (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money/2023/07/07/K2WX4M2C5VCKBEFO2XJPKQCH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)

**직역 연금: 국가 기관, 지방자치 단체 등의 종사자가 받는 연금(예: 공무원 연금)